

## 이스라엘 소식

**대(對)미사일 시스템<sup>1</sup>** – 이번 주 IDF<sup>2</sup>는 아이언 돔<sup>3</sup> 대미사일 시스템을 성공리에 완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 시스템은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이 발사되면 즉각 그것이 헤즈볼라에서 온 것인지, 하마스나 이란이 쏜 것인지를 인식해냅니다. 또한 컴퓨터가 즉각적으로 미사일의 떨어질 위치를 분석합니다. 만일 거주자가 없는 지역에 떨어진다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. 컴퓨터가 주거지에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, 날아오는 로켓을 요격할 ‘대미사일’ 미사일을 쏩니다. 이 시스템은 다양한 조건 속에서 금주에 시험을 마쳤고, 완벽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. IDF는 아이언 돔 연말까지는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
**고대 토기** – 게르손 갈릴 교수는 이번 주에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발견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. 벨 세안 지역에서 주전 10세기(!)의 것으로 추정되는 (넓이 16.5cm) 토기를 찾아낸 것입니다. 토기에 쓰여진 문자는 고대 히브리어입니다. 이것은 초기 히브리 문자 기록을 증거해주는데, 이를 통해 우리는 초기 성경 기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.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이미 성경의 초기 기록을 믿고 있지만, 학계에서는 대부분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. 금번 발견은 학계에 성경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. 게다가 예부터 유대 민족이 이 성지(聖地)에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.

**랍비 J** – 예루살렘 근교 ‘에프라’의 정통파 정착촌에 사는 랍비 솔로모 리스킨은, 최근에 기독교인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예슈아가 공인된 랍비이자 영적으로 충만한 인물이었다고 말했습니다. 다음의 5분 짜리 동영상 꼭 보시길 바랍니다.  
<http://www.news1.co.il/Archive/001-D-225047-00.html?tag=22-03-06>

**반유대주의 운동** – 이번 주, 세계 랭킹 30위의 이스라엘 여성 테니스 선수인 샤흐르 페에르는 불현듯 “이스라엘은 인종차별을 중단하라,” “가자의 학살을 중단하라- 이스라엘 불매 운동을 벌이자”라고 쓴 반유대 운동가들의 피켓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. 이스라엘 정부나 군사 작전과 전혀 무관한 이스라엘 운동 선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다니, 이 가슴 아픈 거짓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라난 것 같습니다. 샤흐르는 그러한 박해에 이스라엘 사람답게(아주 멋지게) 반응했습니다. “저에 대한 시위가 많아질수록 저의 기량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.” 그들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샤흐르 페에르는 이번 주에 UAE로부터 비자를 받았고, 두바이에서 곧 열릴 토너먼트에 참가하게 됐습니다.

**TV** – 이스라엘의 메이저급 TV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아세르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. 주님의 뜻만이 이뤄지길 구합니다.

---

<sup>1</sup> Anti-Missile System

<sup>2</sup> Israel Defense Force

<sup>3</sup> כיפת ברזל

말씀

## 세 명의 엘리야

예슈아께서는 세 명의 엘리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.

**마 17:11, 13 –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...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**

첫 번째 엘리야는 예슈아보다 8세기 앞서 아합과 이세벨에 맞섰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.

두 번째 엘리야는 세례 요한으로, 그의 회개 사역은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예슈아를 알렸습니다. 그는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야의 환생도 아니었습니다. 그는 **“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(눅 1:17)”** 온 것입니다. 요한은 엘리야와 유사한 소명과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나,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.

“세 번째” 엘리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그는 재림 전에 회개 뿐 아니라 회복의 사역을 일으킬 것입니다.

**말 4:5-6 –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**

요한과 마찬가지로, 이 종말의 선지자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임할 것이지만, 엘리야는 아닐 것입니다. 이 3중사역은 엘리야와 요한, 종말의 선지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, 다른 많은 예언들에도 나타나는 패턴입니다.

고대 이스라엘 예언자와 족장의 시대에 최초의 성취가 이뤄집니다. 그리고 예슈아와 제자들의 때에 두 번째로 성취가 나타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 때에 또 성취가 됩니다.

우리는 이것을 예언의 3중성취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. 1.구약, 2.신약, 3.마지막 때. 혹은 1.히브리 선지자, 2.복음, 3.종말이라 칭할 수 있겠습니다.

3중성취는 또한 성전에도 해당이 됩니다.

1. (솔로몬) 1차 성전
2. (헤롯) 2차 성전
3. (환란 때) 3차 성전

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들에는 3중성취가 뒤따릅니다. 그 말씀들은 역사적 정황 속에 선포된 것입니다. 그것들은 예슈아의 초림 때에 또 한번 성취가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 때에 성취를 보여줍니다. 예슈아께서 보여주신 이 패턴을

알고 있으면, 혼돈스럽지 않을 것이고 신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히브리 선지서들과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.